

심우(心牛)를 누이고 피안의 길을 걸어보자



2012년 봄의 대성사 오르는 길. 두 손을 맞잡은 연인의 모습이 꽃보다 아름답다.

② 서울 우면산 둘레길... 대성사

강남의 회색 건물들 사이에 오아시스와 같은 푸른 숲이 펼쳐진다. 우면산(牛眠山)이다.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선 바위역까지 넓게 자리한 우면산은 해발 293m의 낮은 산으로 서초구와 과천시 경계에 있다. 산세가 소가 누워서 쉬고 있는 모양이라 우면(牛眠)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우면산은 서초구 방배동·서초동·우면동, 강남구 개포동·도곡동·양재동, 과천동 등의 뒷산으로 지역주민들과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4월 18일 찾은 우면산에는 2011년 7월 수마(水魔)가 활취고 간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 둘레길 곳곳에는 여름이 오기 전 산세를 복구하기 위한 중장비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우면산 둘레길은 남부순환도로 예술의전당 뒤편 대성사로 오르는 길, 남부터미널 입구에 있는 서초약수터로 오르는 길로 돼있다. 예술의전당 뒤편으로 오르는 길은 밤을 먹고 걷다보면 정상에 이내 오를 정도로 평탄하다. 정상에 자리한 소망담 기준 오르내림을 보면 4Km 이내로 산행 시간은 2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대성사로 향하는 산 초입에는 산을 깎은 축대와 함께 아스팔트 길이 깔려 있다. 벚꽃을 배경으로 예술의전당을 찾은 젊은 사람들이 즐겨 오르는 길이다. 연등이 걸린 벚꽃길을 걷는 연인들이 한폭의 그림과 같다. 아스팔트 길을 따라가면 끝에 대성사가 살포시 머리를 내민다. 대성사는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에 창건설화가 나온다. 백제 15대 침류왕 1년(384년), 인도 승려 마라난타(摩羅難陀) 스님은 중국을 거쳐 바다를 건너 백제에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오는 동안에 물과 음식이 맞지 않아 수도병(水土病)이라는 병에 걸렸다. 그러나 우면산에서 약수를 마시고 병을 고친 후, 대성조당(大聖草堂)을 세웠는데 대성조당이 바로 대성사(大聖寺)의 시초다.

조선 명종 때 태고 보우 스님이 머물며 불교 중흥을 구상한 대성사는 이후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는 선지식들이 한데 모여 논의한 자리가 돼기도 했다. 용성 스님이 만해

스님을 앞세워 손병희 천도교 교주, 길선주·이필주 목사 등과 교류해 독립운동을 도모한 성지로서 대성사 대웅전에 있는 목불좌상(서울시유형문화재 제92호)은 3·1운동 당시 용성 스님이 만들었다고도 전해진다.

대성사는 1954년 한국전쟁 때 소실돼 복원됐는데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당시 다행히 대성사 대웅전은 이를 피했다. 대웅전 양 옆으로 깊은 골이 파일 정도로 당시 흔적은 뚜렷이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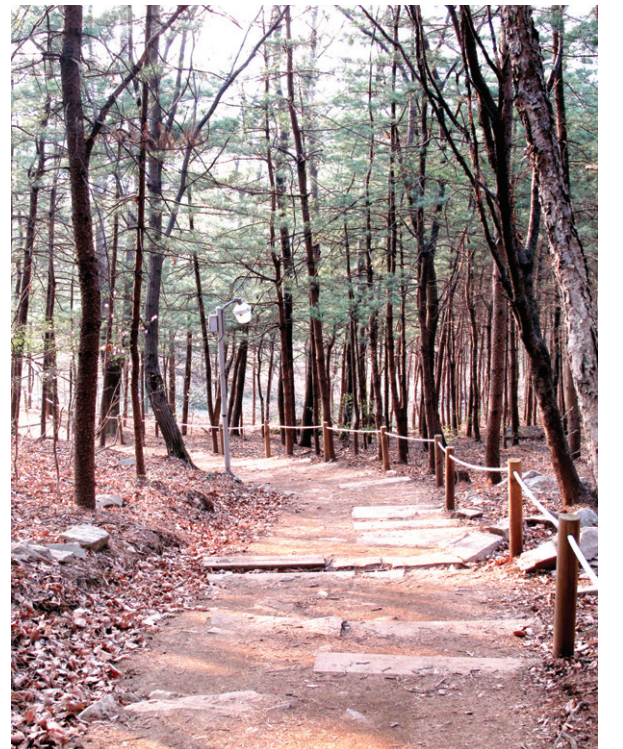
대성사에서 아쉬움도 잠시 해가지기 전 길을 재촉했다. 늦은 오후 산행에 나선 이들은 드문드문 보일 뿐이다. 대성사 옆 둘레길을 계속 오르며 오르내림이 거의 없는 편안하고 넉넉한 길로 바뀐다. 서울시가 한눈에 보이는 명소 중에 명소다. 정상 부분 통제로 기존 등산로를 우회하도록 길이 조성돼 자연스럽게 둘레길이 됐다.

길은 소망담으로 이어진다. 정상 인근 탁트인 시야 아래 돌무더기가 등산객들을 반긴다. 남태령 쪽에서 소망담 쪽으로 오르는 계단은 총 266개로 이뤄져 있다. 일명 깔딱 고개다. 대성사에서부터 반대로 가니 딱딱계단일 뿐이다. 계단 옆으로는 절망이 돼 있는데 6·25 당시 지뢰가 많이 매장된 곳이라고 한다.

우면산은 휴산이라 약수터가 유난히 많다. 유점사와 덕우암이 있는 곳에는 약수터가 있어 산행에 지친 이들에게 감로수를 제공한다. 약수터 지나 따뜻한 산모퉁이에 자리한 휴식공간마루에서는 잠시 쉴 수도 있다. 자전거 바퀴 자국을 보니 하산길인 선바위역과 남태령가는 낮은 산자락은 MTB 매니아들도 애용하는 코스인 듯 하다.

소망담에서 돌무더기위에 내려놓은 마음은 덕우암, 유점사, 범바위, 성불암으로 약 1.9km 가량을 내려가며 온전히 짐작된다. 과천 정원마을 지역으로 넘어가면 내려가는 길 내내 처진 군부대의 철조망과 참호들은 수도 서울의 방위를 위한 것인지 세련되고 현대화된 도시를 침범하는 투박한 자연의 방어를 위함인지 모른다. 차안(此岸)과 피안(彼岸)의 경계를 절묘히 오가는 듯하다.

성불암을 지나 걸음을 재촉하면 남태령으로 향하는 갈



우면산 둘레길은 오르내림이 적어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다.

림길이 나온다. 남태령은 원래 '여우고개'였으나 정조가 사도세자 능원 행차 시, 고개에서 쉬어 남쪽으로 행차하면서 첫 번째 고개라는 뜻에서 '남태령'이라고 불렀다. 정조가 넘었을 직한 '남태령 옛길'을 따라 내려가는 한 반백의 신사가 마치 왕처럼 거닐고 있다.

"혼자서 산에 오셨나요?" "이 나이 대는 걷는게 좋아요. 이정도야 며, 하하" 순간 차오르는 숨이 부끄러워진다. 청명한 하늘, 수분이 가득한 바람이 봄을 확실하게 하는 가운데 다시 걸기에 나섰다. 우면산=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가는 길

대중교통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예술의전당-대성사-덕우암 약수터-사당역-남태령 선원마을-성불암 약수터-소망담

승용차

예술의전당-대성사-소망담 관문사-태극약수터-소망담



대성사 대웅전 뒤에서 바라본 강남의 풍경. 대성사 앞으로 예술의 전당과 타워팰리스를 비롯한 강남의 건물 숲이 펼쳐진다.



국제선불교 조계종 총본산 성주사 개산의식 청명 진성스님 주지 진산식 및 산사음악회



불교계 대덕큰스님 그리고 각 종단 중정예하 및 총무원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큰 어른들을 모시고 국제선불교 조계종 총본산 개산의식 및 초대 주지 진산식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부디 이 법석에 오시여 자리를 빛내주시라며 옷깃을 여미고 합장배례하며 초청의 글을 올립니다.

☘ 일 시 : 불기 2556년 5월 12일 9시 부터
1부 : 개산의식 / 2부 : 주지 진산식 / 3부 : 산사음악회
☘ 장 소 :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도전리 1165-4번지 성주산문 성주사
☘ 연락처 : 031)886-5560. 010-3566-3019

현담 송광. 불도 천장. 송몽. 성해. 남륜. 보현. 종문. 혜성. 무운. 자원. 심오. 자명. 정안 문영석
초대 주지 : 청명 진성 중 정 : 목탁 혜은 합장

